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 영적 자질을 중심으로

김 경 희*

국문초록

기독교상담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발전은 이 분야의 저변 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상담과의 차별성이나 독특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체성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독교상담 정체성 요인으로서의 기독교상담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의 영적 자질에 대해 고찰하고,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전개는 먼저 기독교상담의 정의와 목표 및 특성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상담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영적 자질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인임을 통찰하였다.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학회 차원의 과제로서 커리큘럼 편성과 필수 교육과정으로 기독교세계관 배정, 슈퍼비전에서 영성 문제 다루기를 제안하였다. 둘째, 상담자 개인 차원의 과제로 철저한 개인 훈련과 기독교자원 활용,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및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논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자들이 참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상담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자, 정체성, 영적 자질, 기독교세계관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3일

*부산장신대학교

I. 여는 글

상담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시도되면서 기독교상담학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학교 내 관련 전공 신설, 박사과정 개설, 학술지와 교과서 출간, 연구소 및 프로그램의 발전, 임상현장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학문의 발전만큼이나 기독교상담의 접근 방법과 분야도 다양해졌다. 그 흐름을 보면 성경적 상담, 목회상담, 목회심리학, 기독교 평신도 상담,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결혼과 가족교육, 기독교 가정 및 부부상담, 기독교 가정사역, 기독교 회복사역, 기독교적 가치에 의하여 인도되는 전문심리치료나 상담, 기독교 코칭, 영적지도 및 영성 형성 등으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이 대중화되면서 교회 내에도 역기능 가정, 성인아이, 학대 등과 같은 용어가 보편화되었고, 가정이나 양육, 치유, 상담과 관련된 각종 서적들이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안경승, 2012).

그러나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상담이 역사적으로 신학과 심리학(상담학)이라는 상반된 두 학문의 교차 지점에서 생성된 학문이라는 것, 기독교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담론에 따라 여러 분파와 상담모델이 존재하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노권, 2006).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자리 뿐 아니라 상담 실제의 현장에서도 쉽게 경험하게 된다. 한 예로, 연구자 주변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초보상담자들은 물론이고 숙련상담자 혹은 전문가들조차도 기독교상담이 마치 상담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론이거나 심지어는 과목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또한 상담의 내용이나 형태와는 상관없이 기독교신앙을 가진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 그것이 곧 기독교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기독교상담은 목

회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에 기원을 두고 있고 (오윤선, 2007), 오늘날에 와서는 목회상담을 포함하여 평신도 상담자에 의해 실시되는 상담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Siang-Yang Tan, 1991; 전요섭, 2004; 이은규, 2006). 그러나 상담자의 기독교 신앙 소유 여부만으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혹은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국 기독교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성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 서로 간의 상호작용 요인이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중요하다(박병희, 2016). 먼저 상담자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지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숙련성, 내담자에 대한 호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국내의 상담 연구들은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특히 상담자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오현수, 2009; 전정운, 2012; 안현미, 2013; 임전옥, 2014). 그러므로 내담자를 돕는 전문적인 활동으로서의 상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치료 요인은, 상담이론이나 접근법이 아니라 상담자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성승연, 2008).

상담자 요인에서 중요한 내용은, 상담자는 전문적 자질과 인격적(인간적) 자질¹⁾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 자질은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 측면에서의 기술을, 인격적 자질은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상담자로서의 태도 등을 갖추는 것이다(이장호, 1982). Eugene T. Gendlin(1967)은 그 중에서도 인격적 자질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인격적 특성을 가지지 못한 상담자들이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함에

1) '인격적 자질'은 '인간적 자질'과 유의어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인격적 자질'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결과들을 제시하였다(Gendlin, 1967). 기독교상담자에게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적(신앙적) 자질²⁾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상담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일반상담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자질은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면에서 모든 기독교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의 나’와 ‘신앙인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흔들리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 갈등 경험이 신앙적인 성숙과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임혜미, 2017).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위와 공신력 있는 일반상담 기관에서의 수련 및 임상 경험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자질로 인정되는 실정인바, 영적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격적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상담자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기독교상담자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로는 상담 수련 및 임상 장면이나 삶의 현장에서 상담자로서 겪게 되는 경험적 맥락에서의 연구(김미경, 2010; 노문선, 2010; 이미정, 2014; 박병희, 2016), 영성과 영성개발 및 신학적 성찰 연구(김미경, 2008; 권수영, 2012; 정인숙, 2015), 기독교상담자의 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장동진, 2014; 이민정, 2015), 기독교상담자 진로 모색 차원에서의 상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임명복, 2004; 여한구, 2015), 상담 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및 언어 문제를 다룬 연구(오운선, 2008; 반신환, 2017)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상담자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었다. 임경수(2014)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수직적 경계,

2) ‘영적 자질’은 ‘신앙적 자질’과 유의어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영적 자질’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죽음, 유한성의 개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최진아(2016)는 기독교상담자의 이미지를 '경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포용의 신학을 실천할 때 그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하면서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담자의 자질 측면에서 정체성을 다룬 연구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담과 대비되는 기독교상담의 정의와 목표, 특성을 살피고, 기독교상담 실천가로서의 기독교상담자에 대해 고찰한 후,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요인인 영적 자질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기독교상담

1) 기독교상담의 정의와 목표

기독교상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학자들 개개인의 신학적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 따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요소를 종합해 보면, 협의의 정의는 일반상담과 다름없이 내담자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내면과 외면의 건강함을 돌보는 상담이며, 광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이봉남, 2015). 같은 맥락에서 최은영(2015)은 일반적으로 상담학이 바람직한 인간 변화를 위한 학문으로 정의됨을 전제하고 그에 반하여 기독교상담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인간 변화를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상담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와 행복을 설명하려 한다면, 기독교상담은 인간의 변화와 행복의 전제로 하나님

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함으로써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기독교인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비기독교인 내담자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다 가능하지만 기독교인 내담자는 기독교인 상담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상담의 목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내담자의 행동·태도·가치관·자기이해의 수정, 이 세상에서의 적응력 향상, 스스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이와 같은 일반상담의 목표를 많은 부분 공유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아주 자명한 궁극적 목표, 즉 영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다(Collins, 1982).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무엇을 증진시키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담자가 삶에서 경험하는 증상과 아픔을 다루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제의 깊은 의미를 살피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Jones & Butman, 1991).

오윤선(2007)은 기독교상담의 목적, 목표, 궁극적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총체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것(골 1:28)이라고 하였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new-being), 바른 존재(right-being)가 됨으로써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right-thinking)을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right-behaviors)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느끼는”(2007: 21-23) 것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으며 용서하는 삶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과 내담자가 성숙-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 사회적 성숙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아관을 확립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건실한 생활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 곧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에서의 대화는 사전적 의미로 풀이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앙 요소 활용의 개념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여기서 “신앙 요소의 활용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기도, 성만찬, 세례, 찬양, 예배 등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활동, 교회, 신앙 등에 밀접하게 개입하여 기독교의 기능을 이해하는 전문적 상담자여야 한다”(오운선, 2007: 20).

정정숙(2006)은 기독교상담의 목적을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내담자는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을 ‘기독교적 접근의 상담’으로 정의한다. 목표는 당면 목표인 1차 목표와 핵심 목표인 2차 목표로 구분하여, 1차 목표

는 내담자가 대면한 '주호소문제의 해결을 통한 변화와 성장', 2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변화와 성장'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상담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복음이 드러나야 하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담자의 문제는 단순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통로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2) 기독교상담의 특성

상담 참여 주체 면에서 일반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담의 과정에서 사역하신다. 상담의 목표를 변화라고 하였을 때, 이 변화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하지만 성령께서 변화를 이루어주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신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곧 좌절, 마음의 깊은 상처, 의기소침 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다(Adams, 1979).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 관계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상담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다. 이 때 상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여기에 일반상담과 다르게 기독교상담이 가지는 분명한 특성이 드러난다. 오성춘(1994)에 의하면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이 조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담 장면에서 제3자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상담자의 노력과 기대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Roger K. Bufford(1997)의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특히 기독교상담학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 상담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임을 뜻한다. 둘째, 기독교세계관으로서 상담이 기독교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이것은 상담의 도구나 목적, 동기 등이 기독교 신학이나 성경적인 가치에 의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넷째, 상담자의 개인적 신앙으로서 상담자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섯째, 상담자의 개인적 소명으로서,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상담의 과정에 하나님의 속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의 의와 자비, 성자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화복케 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부여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영적인 개입과 자원의 활용으로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자원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몸, 마음, 가정, 사회, 자연 등 여러 측면에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김예식, 2000).

기독교상담과 인지치료를 통합하여 인격치료이론을 개발한 심수명(2004)은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해 상담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담 관계를 종결짓지 않고 내담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단계까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곧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

도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시 51:5, 롬 3:10, 롬 3:23).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경험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 즉 내담자의 호소 문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당면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죄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다(행 4:12). 그런 의미에서 일반상담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다룰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3자관계로 해석되는 기독교상담은 2자관계로 설명되는 일반상담을 포함하는 더 넓고 깊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상담자

1) 기독교상담자 이해

기독교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기독교상담자, 기독교상담자, 기독교인상담자, 기독교인상담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상담의 전문성을 강조할 때는 상담자가 아니라 상담사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담이 아닌 기독교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상담자'로 지칭한다. 또한 명칭 자체가 내포하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목회상담자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점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회상담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기독교상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을 통해 전문적인 개별화를 이루어 간다. 이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가 통합되어 이상적으로는 최상의 치료적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Skovholt & Ronnestad, 1992), 느리고 일정치 않은 이 과정을 상담자의 발달 과정이라고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상담자가 인격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Collins(1993)는 기독교상담자를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기독교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다. 또한 내담자들이 인격적인 온전함, 관계적인 능력, 정신적인 안정,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기술, 훈련, 지식, 통찰 등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담자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헌신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기독교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가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의 양쪽 측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차적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이차적 소명은 존재함으로써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뜻하며, 소명에 집중할 때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진다(김은미, 김계연, 김용태, 2017: 85-86).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환경이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무엇보다 '치료적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공

동체 혹은 신앙공동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상담자는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체감, 즉 종교적인 의미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Santmire, 1981).

노문선(2010)은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부분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고통에 대한 재해석이다. 기독교상담자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로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상담자들과는 달리 기독교상담자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의 신앙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에게는 인생의 곤고한 국면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상담자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을 단순히 일이나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적인 측면, 행동 변화의 측면과 함께 영적인 측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 다시 말해 상담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영혼 구원 문제는 기독교상담자에게 최우선 과제이자 기독교상담자들만의 고민이며, 이는 곧 일반상담과 차별되는 기독교상담의 독특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기독교상담자 정체성 요인으로서의 영적 자질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영성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철두철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하나님 신앙과 세계를 보는 안목(세계관)을 갖추고, 외적으로는 이러한 신앙과 세계관을 하나님과의 관계(예배), 타인과의 관계(사랑),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문화)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김미숙, 2007).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중심이며 삶을 포괄하는 통전성을 지닌다.

Tan은 영성 이해를 기초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질을 일곱 가지로 제안한 일이 있는데,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증과 굶주림, 둘째, 예배와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기반한 사랑, 셋째,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충만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에 복종하는 것,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일, 다섯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의 관점과 일치하는 사고와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일, 여섯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원이 요구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 일곱째,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신앙의 신비적인 국면에 조율되는 일이다(Tan, 1987: 36-37).

이제 기독교상담자에게 영성이 왜 중요한 지를 살펴보자. 기독교상담자에게 영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성이 기독교상담 실천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천, 신앙과 전문적 삶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수적이다. 둘째, 영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거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간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영성은 먼저 상담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내담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조망하도록 돕는다. 셋째, 영성은 인간이해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인 존재로서의 통전적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을 영으로 충만한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으로 조명해 보아야 인간이해가 더 충분해질 수 있다. 넷째, 영성은 포괄적인 것 즉 통전적이기 때문이다.

분리의 영성이나 금욕주의적 영성은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잘못된 영성이다. 진정한 영성은 신앙의 핵심 요소인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에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포함하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취된다. 또한 신앙과 삶을 포괄하고 이끌어 가며, 이론과 실재를 연결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을 조화롭게 연결시킨다(김미숙, 2007).

강용원(2013)은 기독교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였으며, 그 예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눈 대화(요 4:1-42)의 분석을 통해 완벽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예수님께서서 천국 시민의 법으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속한 마태복음 6:19-34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과 우선순위를 제시해 준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데 구하는 것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은 상담 장면에도 통찰을 제공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에 임하는 자세나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당면한 주호소문제의 해결이나 개인적 성장 및 성숙의 측면에 만족하여 영혼 구원에서의 간절함이 차선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인격적인 자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자기성장 및 자기수용을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에 대한 숭고한 애정을 기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상담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단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상담자가 영적인 자질을 갖추게 될 때 파급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안현미(2013)에 의하면 상담자의 영적 성장이 곧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며, 이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몰입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영적인 자기 돌아봄의 활동들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인격 성숙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 자원들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상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의 신앙 경험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상담자의 신앙 경험이 상담자 자신의 전문성 발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 극복의 중재요인이 되며(오현수, 2009; 강민지, 2012), 이는 개인상담 뿐 아니라 집단상담에도 적용된다는 보고가 있다(권경인, 2007). 따라서 상담자가 신앙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의 범위를 가족상담자와 부부상담자로 확대하여 상담자의 신앙 경험이 상담자 개인 내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 전문가적 발달 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면서 각 관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한 이미정(2014)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의 신앙 경험은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기반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각 측면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강화하며 자기회복과 자기실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또한 성경은 삶의 경험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줌으로써 자기성찰의 깊이를 심화하고 인간이해의 틀을 확장시키며 인격적 성숙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상담자가 영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전문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이자 전제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영적인 자질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세계관이 기독교상담자의 일상적 삶과 전문적인 상담 활동에 통제신념(control belief)으로 작용함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신앙과 삶, 신앙과 전문적 활동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일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정, 2014: 194-196).

반면, 장동진(2014)은 기독교상담 정체성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상담자 개인이 가진 인식 차이와 관련이 깊다는 전제 하에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네 개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인식 유형,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과 성화 중심 인식 유형, 셋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통합 중심 인식 유형, 넷째는 전인적 회복을 위한 상담학의 통합 중심 인식 유형”(장동진, 2014: 1-9)이다. 각 유형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유형은 통합 자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독교상담자의 전문성도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태도임을 강조한다. 둘째, 셋째, 넷째 유형은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상이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둘째 유형은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일반상담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상담자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세로 내담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유형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통합을 강조한다. 이들이 통합의 근거로 기독교세계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상담이 내담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넷째 유형은 독특하게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담자를 해석하거나 상담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장동진, 2014). 이것은 결국 기독교상담자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간격이 넓을수록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독교상담자의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한 과제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요인으로서의 영적 자질 고찰을 근거로, 기독교상담자들의 영적 자질 향상 및 실천과 관련된 과제를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학회 차원의 과제

학회 차원의 과제로는 기독교상담자의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상담자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학회 혹은 협회인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의 규정을 살펴보자.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KACCP)의 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연구, 교육, 보급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신학 교육,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학술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 발전의 기여’ 하는 것이다. 회원 자격은 ‘기독교인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의 전문을 보면 ‘회원들은 기독교신앙의 근거 위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잠재성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저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히 학회에서 자격증을 수여받은 상담치료사들은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상담치료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상담(치료)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 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상담기술, 지식, 자기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Korea Evangelical Counseling Society: KECS)는 본회의 목적 및 본 학회의 신앙고백서에 찬동, 기독교상담학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자, 기독교상담학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M.A., Th.M.)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 소지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석사과정 이수중이라도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에게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학회의 목적 및 신앙고백서에 찬동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는다. 학회 설립의 목적은 '복음주의 상담학을 연구, 개발하여 널리 전파하고, 복음주의 상담사 배출, 상담학도들의 규합, 회원들의 상담역량 강화와 다양한 정보제공 등' 임을 명기하고, 특히 연구의 결과들이 상처 받은 영혼들에게 치료, 치유, 회복, 변화, 성장하게 되는데 있어서 학술적 기여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한다(<http://kecs.jams.or.kr>).

한국목회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KAPC)는 기독교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신학, 기독교의 다양한 영적 자원들과 공동체성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케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사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역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소정의 상담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슈퍼비전³⁾을 받은 후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자격기준에 부

3) 외래어인 'supervision'의 한글 표기는 '슈퍼비전'과 '수퍼비전' 두 가지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어떤 표기법을 쓸 것인가의 문제는 사용자의 선택으로서 이는 학회 간에도 차이가 있다.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 자격 관련 안내를 보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와 한국목회상담협회는 수퍼비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는 슈퍼비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의거하여 '슈퍼비전'으로 사용하며, 동일한 기준에서 supervisor는 슈퍼바이저로, supervise는 슈퍼바이저로 표기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단, 참고문헌에서는 해당 연구자가 기술한 원제목을 따라 명시하였다.

합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독교 교단에 속하면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기독교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상담이 가능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여러 상담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다양한 상담 주제와 교육 분석 및 슈퍼비전의 독립적 시행이 가능한가, 상담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자격등급에 따른 검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http://www.kapc.or.kr>).

각 학회의 회원 자격 요건 중 신앙 관련 기준을 보면 기독교인, 기독교 신앙 소유, 기독교적 관점 견지, 건전한 신앙 소유 등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목회상담협회의 경우 세례와 건전한 기독교 교단 소속의 지역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의 경우 학회의 신앙고백에 찬동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준의 엄격성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학회 설립 목적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항목을 명기한 것에 비해, (보수)교육의 내용을 보면 영적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일반상담 내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⁴⁾

4) 각 학회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보수)교육은 주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자격취득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되기는 하나(개인상담, 개인분석, 집단상담,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 임상사례발표,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발표 참가 등), 이런 요구 조건과 영성 함양과의 관계는 확인하기 힘들다. 또한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 상담이론과의 관련이지, 영성 함양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각 학회의 시험과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목회상담협회의 경우(1급)는 목회/기독교상담 방법론, 종교심리와 영성, 가족치료, 정신분석과 상담이론, 현대심리치료, 목회/기독교상담과 진단이다. 여기에 유일하게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2급, 2018. 2. 3.)는 기독교상담, 발달심리, 정신역동, 정신병리, 가족치료, 집단상담이다.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는 성경적 상담, 기독교상담, 상담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상심리, 성격심리, 인지상담, 심리검사, 발달심리, 위기상담, 가정상담 등을 선택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여한구(2015)에 의하면,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넘어 영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상담 전공 학과가 개설된 학교(대학, 대학원)를 비롯하여 학회나 협회 등의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독교상담자 전문성의 핵심은 바로 기독교 특성의 반영이다. 특별히 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보다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상담의 특성상 교회 내의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목회자 관련 문제, 교회 운영 관련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신앙을 가진 상담자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영성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상담자의 신학 지식과 영성 강화는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학회나 협회, 상담자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문선(2010)도 기독교상담을 가르치는 학교나 학회 차원에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상담자 스스로의 역전이를 극복하는 데도 가장 큰 자원이 되며, 내담자를 향한 전인적인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Collins(1980)는 기독교상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추천하면서 사람을 도우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범주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과 같은 공통의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조하였다.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볼 때도 기독교상담 슈퍼비전에서는 영성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슈퍼바이저 자신의 영성과 슈퍼바이저의 영성 및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필수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왜 세계관인가? 세계관의 중요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 질문들에서도 확인된다. 인간의 본성과 사명,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세상과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나 장애 진단에 대한 질문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구원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무의식적으로 전제되는 인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계관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Walsh & Middleton, 1984). 또한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Brummelen, 2002), 모든 것의 기원과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상의 체계로 정의(Harper, 1981) 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세계관이 정해지면 가치관이 정해지고 행동양식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세계관은 가치관 정립의 토대가 되며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은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수명(2004)은 기독교상담의 과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내담자의 신념과 사고를 재정립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非)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상담의 이론을 공고히 하고 실천을 정교화 하는 것은 기독교상담 분야의 주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상담자 개인 차원의 과제

영성과 관련하여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Dallas Willard(2000)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영성 형성에 관하여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성 형성은 특별한 영적 활동을 통하여 훈련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는 영성 형성과 영적 훈련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영적 훈련 자체가 곧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영성 형성은 내적 세계나 영, 또는 인간 존재의 영적인 측면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셋째, 영성은 성령과 영적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현존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또한 상담자가 어떤 관점을 견지하였든지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영적인 가르침들을 상담실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권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영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Willard, 1996). 이상과 같은 Willard의 세 가지 관점을 기초로 상담자 개인 차원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상담자는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개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훈련이 요구된다. 그들은 상담 실재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강조하고 또한 충고를 제시할 때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하며, 성경적인 원리와 기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이해와 영적인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기도, 영적인 분별, 성경적인 입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상담자는 직업적인

소명과 함께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사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에서는 무엇을 믿었으며 훈련하였는지에 관한 이해이다(정혜숙, 2015).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상담자 속에 풍성히 거할 때(골 3:16), 말씀의 놀라운 능력(히 4:12)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믿고,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이다. Frank E. Gaebelin(1968)은 성경에 관한 강의들, 예를 들면 성경해석학, 본문 비평, 성경 언어 등 성경에 대한 배움의 과정은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정작 성경 자체에 대한 가르침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이 지적에 동의한다. 상담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게 된다. 즉 문제의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에게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기독교상담 내에서 심리학이 성경보다 더 우위를 점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 혹은 희석시키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교회에 침투해 온 현대사상 중 심리학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사상이라고 지적한 Dave Hunt(1987)의 말은 의미가 있다.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상담에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경 공부와 아울러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

기독교상담자들은 일반상담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연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기독교상담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답전 4:7). 나아가 상담의 실제에서는 모든 기독교자원을 상담의 자원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자원은 성경 말씀, 기도, 설교, 성례전, 기독교교리, 전도, 성경 공부, 종교적 문서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독교자원을 상담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법 개발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홍영식, 2012).

Tan(1991)은 성경적 견해와 건전한 심리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평신도 기독교인 상담자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성경적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영적인 성숙(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은사(spiritual gifts), 이용성과 학습 능력(availability and teachability)을 들 수 있다. 영적인 성숙은, 상담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춘 자로서 정규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적인 은사는 상담자는 적절한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영적 은사에는 지혜, 지식, 자비, 영분별, 충고, 치유 등이 포함된다. 이용성과 학습 능력은, 상담자로서의 훈련과 감독을 받으면서 상담 사역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가 배운 성경적인 접근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이러한 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 실천가로서의 기독교상담자라는 측면에서 연구자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상담 장면에서 복음 제시의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가 기독교인인 경우와 비기독교인인 경우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각 회기 진행에서 복음의 내용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상담 받고 싶은 내용 즉 내담자가 요청하는 상담의 종류가 종교나 신앙의 문제일 때는 복음이 직접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동의⁵⁾를 얻은 후에 신앙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의 경우 주호소문제와 관련되는 본문이나 구절을 찾아서 읽기, 묵상하고 나누기,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 느낌을 표현해 보기 등이 있다. 기도의 경우 상담의 시작 혹은 마침을 알리는 시그널(signal)로 사용할 수 있고, 찬양의 경우에는 주제에 알맞은 곡을 선정하여 직접 부르거나 듣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상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가 달성되면 상담을 종결한다. 내담자가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종결 시점을 의논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회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회기의 길이나 분량에 따라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회기가 짧을수록 핵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들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롬 10:13-17). 따라서 복음 제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는 상호작용, 즉 언어 내용 뿐 아니라 인격 간의 교류가 함께 수반된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친밀감(rapport)이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김선일(2010)은 복음이 제시되는 경로의 다면화를 주장하면서, '명제적

5) 여기서의 동의는 내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설령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상담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비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고 구술적인 복음 제시'와 '전인격적이며 다차원적인 복음 제시'가 어울리는 것이 주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담 장면은 시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책자 전도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CCC)의 사영리,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The Korean Navigators)의 브릿지, 교재는 상담자 출석 교회에서 사용하는 학습, 세레(입교) 교육 교재, 새신자 양육 교재, 기독교교리문답집 중에서 기독교론 부분, 신앙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 등을 들 수 있다. 복음 전달 수단으로서의 도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상담자에게 익숙하고 숙련도가 높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버전에 따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김재우, 2017). 따라서 개역개정, 개역한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새번역 등의 한국어 번역본과 NIV, KJV 등의 영어성경을 다양하게 활용하되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상에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복음 제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논의에서 주요소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을 조명하되 영적인 자질의 측면에서 살피고자 시도되었다. 기독교상담은 목표, 방법, 기법 등의 많은 부분을 일반

상담과 공유하며, 기독교상담자는 일반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체가 되는 2자관계의 상담인 반면, 기독교상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3자관계의 상담임을 주지할 때, 영적 자질의 소유 여부는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이에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자의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먼저 학회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수적 교과과정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필요성과 슈퍼비전에서 영성 문제가 깊게 다루어져야 함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회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상담자 개인 차원에서는 철저한 영적 훈련과 상담 장면에서의 복음 제시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개인 훈련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기독교자원을 상담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복음 제시 경로의 다면화 측면에서 상담 장면이 갖는 시사적 의미를 확인한 후, 복음 전달 수단으로서의 도구 및 다양한 버전의 성경 사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도전하였다.

기독교상담자는 기독교상담 분야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이다. 영적 자질 함양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독교상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영역에서 진일보한 후속 연구물들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용원 (2013).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6, 37-73.
- 강민지 (2012). 근거이론에 의한 아동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경인 (2007). 한국 집단상담 대가의 발달과정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수영 (2012).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신학적 성찰: 임상현장에서의 상관관계의 방법. **신학과 실천**, 32, 369-396.
- 김미경 (2008). 기독교상담자와 영성. **복음과 상담**, 11, 165-185.
- 김미경 (2010). 기독교상담자의 성찰경험: 내담자의 조기종결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4, 161-193.
- 김미숙 (2007).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일 (2010). 생태적 사고를 통한 복음 전도의 이해. **복음과 선교**, 12, 140.
- 김은미, 김계연, 김용태 (2017). 실존적 소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지명하여 부르심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85-86.
- 김예식 (2000). **말씀 안의 상담과 치유 이야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재우 (2017). 중학생의 성경 이해도에 관한 연구-세 종류의 한국어 성경번역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 329-359.
- 노문선 (2010). 기독교상담자의 역전이 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노권 (2006). 목회상담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79-106.
- 박병희 (2016). 여성 기독교상담 전문가의 부부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반신환 (2017). 기독교상담자의 언어에 대한 제언-Freud와 Lacan의 언어적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7, 133-153.
- 성승연 (2008). 효과적인 치료자 요인에 대한 고찰. **동서사상**, 5, 1-22.
- 심수명 (2004).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38.
-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복음과 상담**,

19, 188-216.

- 안현미 (2013). 상담자 발달에 신앙 경험이 갖는 의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한구 (2015). 기독교상담사의 진로: 상담소 운영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25, 190-217.
- 오성춘 (1994).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오윤선 (2007).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21-23.
- 오윤선 (2008). 기독교 상담자의 윤리교육이 상담 윤리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48, 152-177.
- 오현수 (2009). 상담전문가 발달과정에서의 좌절극복경험 분석.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발달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정 (2015).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남 (2015). 기독교상담 통합방법으로서의 복음적 차용통합론.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규 (2006).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6, 37-60.
- 이장호 (1982).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경수 (2014).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수직적 경계, 죽음, 그리고 유한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2), 167-188.
- 임명복 (2004). 한국교회 안의 기독교상담사에 의한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전옥 (2014).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미 (2017). 기독교인 초보상담자의 상담자 되어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동진 (2014). 기독교상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기독교 상담자를 대상으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 전요섭 (2004).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 상담자 양성 및 활용. **복음과 상담**, 2, 10-39.

- 전정운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인숙 (2015). 기독교 상담자의 영성개발 연구: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중심으로.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2006).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51.
- 정혜숙 (2015). 교회내의 성경적인 평신도상담자의 필요성과 자질 연구. *성경과 상담*, 14, 161-193.
- 최은영 (2015). *기독교상담학-비평과 사례*. 서울: 햇빛트리니티 출판부. 12-14.
- 최진아 (2016). 경계에 서 있는 기독교 상담사: 포용의 신학의 관점으로 본 기독교 상담사의 정체성.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식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J. E. (1979). *More than redemption: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Brummelen, V. H. (2002). *Stepping 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Colorado Springs: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Bufford, R. K. (1997). Consecrated counseling: Reflecting on the distin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1), 111-122.
- Collins, G. R. (1980).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Leadership*, 1(4), 78-86.
- Collins, G. R. (1982). *Helping people grow: 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Ventura: Vision House.
- Collins, G. R.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NavPress.
- Gaebelein, F. E. (1968). *The pattern of God's truth: Problems integration in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 Gendlin, E. T. (1967)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Madison: University Wisconsin Press. 167-171.
- Harper, N. E. (1981).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emphis: Christian Studies Center.

- Hunt, D. (1987). *Beyond seduction*. Eugene, OR: Harvest House.
- Jones, S. L., & Butman, R. E. (1991).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Santmire, H. P. (1981). We really need to know what pastoral counseling is: Reflections for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s. *Pastoral Psychology*, 29(4), 244–253.
- Skovhlo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 505–515.
- Tan, S. Y. (1987). Interpersonal integration: The servant's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1), 34–39.
- Tan, S. Y. (1991).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 for a helping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 Tan, S. Y. (2012). Principled, professional, and personal integration and beyond: Further reflections on the past and fu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2), 146–149.
- Walsh, B. J., & Middleton, J. R.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Willard, D. (1996). Spirituality: Going beyond the Limits. *Christian Counseling Today*, 4, 19–20.
- Willard, D. (2000). Spiritual formation in christ: A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how it might be Don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54–258.
- 국립국어원 (2017). 외래어 표기법. 2018. 04. 23 검색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4&mn_id=97
<http://www.kaccp.org>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http://www.kapc.or.kr> 한국목회상담협회
<http://kecs.jams.or.kr>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 Abstract 】

Christian Counselor's
Identity : Focused on spiritual qualities

Kim, Kyung Hee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piritual qualities as identity factors of Christian counselors and to suggest tasks for improvement of spiritual qualities. The study first explored the definitions,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counseling,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counseling, and provided a deeper understanding of Christian counselors based on this, and it was insighted that spiritual qualities could be a key factor in the formation of identity. In order to improve the spiritual qualities of Christian counselors, first, I proposed to organize curriculum as an academic society level task, to assign Christian world view to essential curriculum, and to deal spirituality problem in supervision. second, the counselors emphasized the effective use of personal training and Christian resources as an individual task, and an effective plan for presenting the gospel to the client in the counseling scene. and I suggested a close examination of the concrete method and an active discussion.

In order to improve the spiritual qualities of Christian counselors, first, I proposed curriculum as an academic society level assignment, Christian world view assignment as essential curriculum, and spirituality problem in supervision. Christian counselo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fulfilling the mission of establishing true identity and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on earth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ounselor, identity, spiritual qualities, Christian worldview